

## 2011년판 통상백서 발표

7월 9일 발표된 2011년판 일본통상백서는 「지진재해를 넘어 글로벌한 경제네트워크의 재생 강화를 위하여」라는 부제하에 제1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제2장에서는 세계와 일본의 통상구조 변화를, 제3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새로운 해외전개방향을 다룬 후에 제4장에서는 대지진 이후 일본과 세계와의 통상, 경제관계 구축을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 세계경제의 현황과 과제

- 회복은 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세계경제
  - 작년 봄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들의 견인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속도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이가 보다 선명해짐.
  -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위기 이후 일단 축소되는듯 했으나 2010년 들어 다시 확대경향을 보임. 지속불가능한 재정적자에 의한 채무상환 불이행(default), 금융기관의 불안정화,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에 의한 가일층의 인플레이 등이 세계경제의 하강우려를 낳게 하는 변수로 작용
-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 세계적인 금융환경 완화를 배경으로 한 실수요 증가, 기후, 수출국의 정치정세, 자금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원/식료품 가격 상승 → 세계경제 하강을 초래

- 이와 함께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향
  - 앞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균형 시정,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 보호주의 방지와 자유무역 촉진 등을 위한 G20, APEC등 국제적인 장에서의 합의 형성을 위한 협조가 필요

## □ 세계와 일본의 통상구조 변화

-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변화된 세계 통상구조
    - 2008년 일본 대신에 중국이 세계무역구조의 한축을 담당한데 이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심화/확대, 아세안 역내무역의 확대 등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앞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 등이 수요원으로서의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생산/수요네트워크로 확대 되어 원세트형 자율적인 경제권을 구축
  - 일본의 새로운 통상파트너 : 메르코수르(MERCOSUR)\*
    - 2000년대에 들어와 세계 통상구조에서 메르코수르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브라질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업들의 진출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시장환경정비 추진이 매우 중요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19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 이로써 북미자유협정(NAFTA)이 채택된 이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었음.

○ 일본의 경제/산업구조와 파급효과의 변화

- 일본은 종래의 풀세트(full-set)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산업의 해외와의 연관도가 높아진 결과 앞으로 국내생산과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대상국으로부터의 수익 환원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일본경제의 새로운 해외전개 : 세계경제위기와 지진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 일본의 전략분야가 신흥국의 성장과제에 공헌

-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국(아시아를 포함)들의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이들 시장의 중간층을 겨냥할 필요가 큼.
-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기술력이 이들 신흥국가들의 성장과제 해결에도 공헌

○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일본기업의 현지화

-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현지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출, 현지로부터의 배당이익 환류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앞으로 경제적 제후 등을 통하여 중간재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배당이익 환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과 세계의 통상관계

- 지진이 일본의 생산/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지진직전까지 수출이 회복궤도에 올랐으나 지진 이후 생산/수출이 대폭 감소, 그러나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앞으로도 회복 예상
- 일본의 수출을 기점으로 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중요성
  - 지진발생 직후에 세계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중단이 우려되었으나 업계/지역의 복구노력에 힘입어 생산활동이 급속히 회복
  - 일본정부로서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전후방 관련 산업간 제휴강화, 중간재산업의 가일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

## □ 지진을 넘어 일본경제의 재생을 향하여

- 일본의 재생을 향하여
  - 지진의 피해를 극복하고 잠재적인 성장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지진 전부터 존재해 있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시스템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
- 다각적 자유무역체제 추진 및 전략적 대외경제관계 구축
  - 앞으로도 일본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속에서 세계 각국과 중층적인 경제관계를 구축, 경쟁력 있는 중간재를 수출할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은 전략적인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여 자유무역/투자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 등도 고려하여 TPP협정교섭참가의 판단시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입지경쟁력의 재생/강화를 위하여

- 지진피해대책을 계속 강구중에 있긴 하나 일본의 입지경쟁력에 관한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공동화가 조장될 우려도 배제 못함.
-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입지의 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 시스템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시에 외자계기업의 지역통괄 또는 연구개발 거점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 시사점

- 이번 통상백서에는 지진을 계기로 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강화의 중요성, 경쟁력있는 중간재의 공급자로 일본의 역할, 일본의 재생을 위한 대내외적인 제휴(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의 중요성 등과 같은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음.